

한겨레 신문, 2025. 4. 14

이재명 대통령의 AI 기본사회: 100조 투자와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4월 출마 당시 모든 국민이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내놓고,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와 인재 양성,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 제시

이재명 “국민 누구나 활용하는 AI 사회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AI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한 AI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I 기술이 단순한 산업적 수단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등 주요 분야의 리스크를 AI로 분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챗GPT가 전국적으로 활용되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는 신산업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AI 투자 100조원… GPU 5만장 확보, NPU 개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 최소 5만 장의 GPU를 확보하고, 국내 기술 기반의 NPU 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관련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와 AI 특구 확충, 공공 데이터 개방을 동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NPU 분야 국내 1위 AI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퓨리오사AI 관계자들은 AI 분야는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집적된 자본력, 인력 충원,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글로벌 협력·인재 양성도 병행

국내 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제 협력과 인재 양성도 정책 구상에 포함됐다. 그는 '글로벌 AI 공동투자 기금'을 설립해 협력국 간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태평양·인도-중동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억 명 규모의 디지털 인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K-AI' 중심의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재 양성 계획으로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 거점 대학 내 AI 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연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놔다.

4월의 용어 모두의 AI, AI 기본사회, AI 포용성

출처 : 1) 한겨레신문(2025. 4. 14), 이재명 'AI 기본사회'... “무료 활용할 모두의 AI에 100조원 투자”

2) 중앙일보(2025. 4. 15.), 이재명 “한국형 챗GPT 무료 보급”... AI 기본사회로 꺼냈다